

숙박업소 파고든 보이스피싱 변작 중계기

해외 발신번호→'010' 조작해 범죄에 이용 숙박업소서 잇따라 발견... 추적도 어려워 24일 경찰·전파관리소·관광협회 합동점검

제주도내 모 숙박업소에서 보이스 피싱 등에 사용되는 불법 무선중계기가 발견되면서 경찰이 합동점검에 나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검거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주도내 모 숙박업소의 한 객실에 불법 무선중계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재까지 해당 무선중계기가 이용된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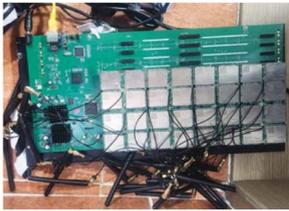
불법 무선중계기는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인 '010' 등의

로 변작해 송출하는 기기로 '변작기'라고도 불린다. 해외 범죄 조직과 연계된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태는 일반 와이파이 공유기와 유사한 모습이지만, 통상 2~4개의 안테나가 달린 공유기와 달리 수십 개의 안테나가 꽂혀 있다.

A씨 또한 중국 내 범죄조직의 지시를 받고 도내 호텔에서 무선중계기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같은 해 4월 호텔의 객실을 청소하던 업주가 무선중계기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객실에 무선중계기를 설



지난해 4월 제주도내 모 호텔에서 발견된 보이스피싱 변작 중계기. 제주경찰청 제공

치한 뒤 본국으로 돌아갔고, 경찰은 범행 4개월 뒤 다시 제주로 입국한 A씨를 검거했다. 재입국 당시에도 A씨는 불법 무선중계기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023년에도 제주 시내 모 호텔 두 곳의 객실에서 발신번호 변작 무선중계기가 적발된 바 있다.

이처럼 도내 숙박업소를 중심으

로 무선중계기 설치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이날 제주전파관리소, 제주관광협회와 무선 중계기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도내 숙박업소 1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파관리소 관계자들은 무선 주파수 송출 전파기기를 감지하는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를 이용해 객실 곳곳을 살폈다. 다만 이날 점검에서는 불법 무선 중계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강귀봉 제주경찰청 강력계장은 "무선중계기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발신번호가 조작돼 추적이 어렵고, 용의자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며 "숙박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단속과 더불어 원통과 오피스텔까지도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습지·용천수를 생태·문화공간으로... 제주시, 먼물습지·청굴물 등 20곳 복원사업

제주시가 사라져가는 읍면동 지역의 습지와 용천수 복원에 나선다.

제주시는 올해 5억원을 투입해 습지 8곳과 용천수 12곳을 대상으로 제주다움을 되살리고, 이를 생태·문화 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 관련, 습지는 ▷한림읍 사운다리못, 중천이물, 물거리못 ▷애월읍 먼물습지, 어육세미, 하동연못, 유수암 ▷한경면 소고룻터 등이다. 용천수는 ▷구좌읍 대수굴 ▷조천읍 남당물, 큰물여당, 고도물남탕 ▷애월읍 땃개물,

큰물도, 유수암천 ▷삼양동 셋소리물 등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돌 붙임(판석), 바닥 세척, 잡목 제거 등이다. 시는 주민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의견을 최대한 사업에 반영하고, 공사 과정에서 장비 사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습지와 용천수는 제주 사람들의 삶과 함께해 온 소중한 생명의 근원"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만의 정서가 되살아나고, 습지와 용천수가 세대를 잇는 생태·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독서 모임한다면 '북클럽 키트' 빌리세요

제주도서관 등 공공 도서관 6곳 동시 서비스

제주도서관을 비롯한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6곳이 독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북클럽 키트' 서비스를 운영한다.

북클럽 키트는 4명 이상으로 구성된 독서 동아리에게 동일한 책 5권과 토론용 발제문이 들어있는 독서 꾸러미를 대출해 주는 서비스다. 사전에 신청하면 제주도서관, 서귀포도서관, 한수풀도서관, 송악

도서관, 동녕도서관, 제남도서관 등 어디에서나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단, 사전에 독서 동아리를 자율적으로 꾸리고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서 동아리로 등록하려면 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누리집과 도서관에 있는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도서관 전자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김지은기자

제주환경단체, 도지사 후보에 기후정책 제안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환경단체가 제주도지사 후보자들에게 6대 기후 정책을 제안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도지사 후보 5인에게 제주도 핵심 기후 현안인 에너지전환과 버스 대중교통 관련 6대 정책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책은 ▷300MW급 가스발전소 신설 문제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유연성 자원 확대 ▷에너지 다소비 건물 수요관리 강화 등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정책' ▷보행 및 대중교통 중심의 제주형 녹색교통 정책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서귀포시 우선의 버스 공영화 추진 ▷버스 요금 인상 계획 폐기 및 이용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

제주행동은 "정책 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 문대립·오영훈·위성곤 후보, 진보당 김명호 후보,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오는 30일까지 답변을 받아 4월 1일 도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도 제주행동 실행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적합한 적임자가 선출돼야 한다"며 "정책 질의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해 도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양유리기자

"도민 자기결정권 쟁취"

제주제2공항 반대단체

27~내달 14일 전도 도보순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상 비상도민회의)는 열흘간 제주 전역을 걷는 도보순례에 나선다.

비상도민회의의 도보순례 일정은 오는 27일 서귀포시 성산읍 대수산봉에서 시작되며 다음 달 14일 까지 이어진다.

특히 도보순례 4일 차인 오는 30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타운홀미팅 일정에 맞춰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비상도민회의는 "올해를 제2공항 백지화 투쟁의 해로 선포한 만큼 도보순례를 통해 제2공항 갈등의 해결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에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며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간담회와 제주도의회 지역구 후보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양유리기자



뛰어노는 남방큰돌고래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던 지난 20일 서귀포시 외동개와 동배남굴이 이어지는 올레길 앞 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2마리가 뛰어노며 유영하고 있다. 독자 장병순씨 제공

공동체와 함께하는 '한수풀 책 축제'

한수풀도서관 4월 11일

'2026 한수풀 문화공연'

한수풀도서관이 오는 4월 11일 '2026 한수풀 문화공연'을 연다.

이날 도서관 일대에서 펼쳐지는 행사는 공동체 중심의 독서 축제로

꾸러진다. 새마을문고한림읍분회와 금능꿈차문화재단 등이 참여한다.

당일 오후 2시에는 '책은 도끼다'의 저자 박용현 작가의 강연이 열린다.

이보다 이른 오전 11시에는 인기 그림책을 원작으로 한 가족 뮤지컬

'냉장고가 사라졌다' 공연이 펼쳐진다. 낮 12시 30분부터 풍선 아트와 나눔 행사가 이어진다. 축제장에선 '아코디언 북 만들기', '양말 목 티코스터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책 전시도 만날 수 있다.

작가 강연과 뮤지컬 관람은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달 25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경 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 제주캠퍼스 유치 축

제주적십자사가 오동동으로 이전하며 인재개발원 제주캠퍼스를 유치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주는 우리나라 인도주의의 성지로 도약하게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적십자사 이전 안내

주소: 제주시 한복로 35 / 문의: 064-717-0900
새로운 사옥에서도 도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